

소설 심사평*

김형수

내년이면 5·18도 30주년이 된다. 그 날의 정신이 더 이상 옛날 속에 갇히지 말고 더 넓고 큰 미래 속으로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다. 오뉴월 이파리는 못 생겨도 오뉴월의 이파리이고, 구시월의 이파리는 때깔이 고와도 구시월의 이파리이다. 나무가 더 오래 데리고 의존해야 할 이파리를 먼저 생각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투고 작이 5·18이라는 큰 이름에 너무 직접적으로 얽매어 있었다. 소재의 반복이 심할수록 투고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꼬집어서 말해두고 싶다.

맨 나중까지 남겨놓고 다시 읽은 작품은 도합 여섯 편이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잔혹성에 대한 소견>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기는 사하나, ‘사건수첩’이나 ‘형사물’의 다큐멘터리를 접하는 느낌이었다. 5·18 때 진압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폐암 말기 환자가 되어서 30년 만에 참회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와 40대 중반에 K공고 시절을 회상하는 <후생가외>는 진정성이 돋보이나 중심 서사가 장면과 형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레이션을 통해서 밝혀진다. 언어예술로서 치명적 결함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지역감정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자 했던 작품인 <싸늘한 태양>은 매우 훌륭한 내용을 교육적으로 계산해 넣은 기획소설로 읽혔다. 그만큼 계몽주의적 욕심이 느껴지는데다 본문 내용에 주취 측이 긍정되고 있어서 제외시켰다. 마지막까지 경쟁한 작품은 <불온한 병>과 <달빛>인데 전자는 뛰어난 풍자가 살아있고 나름대로 서사를 운영하는 능력이 있으나 전반부와 후반부의 수준차이가 너무 컸다. 후자는 만연체 문장을 갈무리하는 솜씨가 부족해서 여러 곳을 멈춰가며 읽어야 하고 군데군데 신파로 흐르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달빛>처럼 미련·회한·연민을 다름으로서 가치 지향성을 ‘일상의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온 점을 높이 사고 싶었다.